

# |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 등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교환

## 후쿠이현의 환경 관련 토포

### 1 아스베스토(석면)에 의한 건강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현재, 아스베스토 대책에 대한 국가의 법제도가 반드시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민의 건강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의 대책을 기다리기 전에, 전국에 앞서 2005년 10월 11일에「후쿠이현 아스베스토에 의한 건강 피해의 방지에 관한 조례」를 먼저 공포하여 시행했습니다.

본 조례에는 ①대기오염 방지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규모의 아스베스토 제조 시설과 아스베스토 분무재 사용 건축물 등의 해체와 보수 작업에 필요한 규칙 ②아스베스토 분무재 사용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한 건축물의 적정 관리와 노력 의무 ③아스베스토 분무재 사용 건축물 등을 기록한 장부를 정비(정리)하여 재해 발생시 정보 제공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소규모 건축물 해체시, 신고하는 등의 현 독자적인 규제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6년 3월부터 새 법률로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현은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 근거한 신고 절차 수리(受理)와 입회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2 지구 온난화 대책 지역 추진 계획의 개정

본 현에서는 2005년 2월 16일 교토 의정서에 의한 영향으로 현내의 지구 온난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2006년 3월에「후쿠이현 지구 온난화 대책 지역 추진 계획」을 개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2010년도의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에 비해 3%삭감”이라는 삭감 목표를 내걸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상생활(Life), 사업 활동(Office), 자동차 이용(Vehicle), 환경 교육(Education)의 각 분야에 있어서 지구 온난화 방지 활동에의 고리(연결)를 넓히기 위한 「LOVE·아스·후쿠이」(온난화 스톱 현민 운동)을 금년 6월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 3 폐기물 처리 계획 책정

본 현에서는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을 활발히 추진시키기 위해, 2006년 3월에 새롭게「후쿠이현 폐기물 처리 계획」을 책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일반 폐기물에 대해 2010년도 하루 1인당 쓰레기 배출량 목표를 940g 으로 설정하고(2003년도 : 973g), 총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 대책 등을 중점 시책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시정(市町)의 분리 수거품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발생량 500t 이상의 대량 배출 사업자에 대한 폐기물 감량화 계획과 실적을 보고, 제출함과 동시에, 산업 폐기물 처리 업자의 처분 시설 정보를 공개하고 또, 우량 처리 업자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4 미카타 고코(호수이름) 국제 랍사조약(국제 습지 조약) 등록

2005년 11월 8일부터 11월 15일에 아프리카의 우간다 공화국에서 개최된 “국제 습지 조약 체결국 회의” 첫날에 본 현의 「미카타 고코」가 “람사조약 습지”에 등록되었습니다.

본현에서는 미카타 고코의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하여 현재, 호수에 퇴적된 토사 준설과 수질 정화 연구 등의 수질 개선을 강구함과 동시에, 공공 하수도의 정비와 농업 취락 배수 처리 시설의 정비 등, 오수 대책에 대한 촉진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2004년도에 미카타 고코 주변에 뛰어난 자연을 소재로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에코투어리즘(환경보호지향 관광)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카타 고코가 “람사조약 습지”에 등록과 함께 2005년 11월에는 전문가와 현지 미하마 와 카사 양마을의 환경보전 단체 대표등으로 구성된 「미카타 고코의 보전·활용에 관한 검토 위원회」을 설치하여 미카타 고코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책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